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11. 26.(목) 즉시보도

“민방위 재난문자 오발송 막는다” 전국 민방위 경보 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 다양한 민방공 상황을 가정한 재난문자 오발송 방지 특별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문자 오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민방위 경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대상/방법 : 12.2(수)~4(금) 14:00~16:00 /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170여 명) / 영상교육
교육내용 : 재난문자 발송시 주의사항, 경보발령.전달체계, 경보유형별 시.도 조치사항 등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경상북도가 울릉군 지역에 실제상황과 다른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난문자 오발송은 경상북도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재난문자 송출 시스템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훈련 문구인 ‘북한 항공기’를 ‘러시아 항공기’로 수정하지 않고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민방위 경보 담당자의 실전 대응 역량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담당자 부주의에 따른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문자 오발송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문자 발송 시 시스템 조작 방법, 경보종류, 발령대상지역, 발령시각, 발생상황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뒤 발송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매년 수립하는 민방위 경보 자체 교육·훈련 계획에 경보발령체계, 경보장비 조작 방법뿐만 아니라, 재난문자 발송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상철 안전행정실장은 “시스템 조작 착오와 발송 전 문구 확인 소홀로 국민에게 큰 혼선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한 민방위심의관은 “이번 특별 교육을 통해 민방위 경보가 신속성뿐만 아니라 정확성과 신뢰성까지 확보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책임자	센터장	임문혁 (044-205-4380)
		담당자	서기관	안병억 (044-205-4381)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위기관리대응센터	책임자	센터장	권종원 (054-880-7210)
		담당자	사무관	박기진 (054-880-49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